

은행권 예금금리 바닥 기는데 대출금리 요지부동

기준금리 인하로 1%대 하락 대출금리 되레 올린 곳도 예대마진 커 금리장사 여전

40대 직장인 A(42)씨는 최근 은행에 1~3년짜리 정기 예금을 3개 뒀다. 펀드로 손실을 봤던 '트라우마'가 강해졌다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위험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은행을 찾고 있지만 낮은 이자 때문에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과거 재테크의 큰 축이었던 은행 예금이 개인들의 금고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준금리(1.75%)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금리가 시중은행의 대세로 자리잡으면서다. 하지만 은행이 개인금고에 불교하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를 3~5%로 유지하며 예대 차이를 최대 3.7%까지 두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은행연합회의 은행 주요 예금상품 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10대 은행을 대표하는 1년 정기예금 상품 10개의 평균 금리는 1.64%에 불과했다. 10대 은행 중에서도 메이저로 분류되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평균 금리는 1.60%로 10대 은행 평균보다 0.04%포인트 낮다.

온라인 전용을 제외하고 금리가 가장 높은 오프라인 상품은 기업은행의 '신서민섬김통장'과 산업은행의 'KDB 드림 정기예금'으로 각각 1.85%다. 외국계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의 '주거래고객우대 정기예금'은 1.3%로 금리가 가장 낮다. 각 은행의 알뜰마당 격인 정기예금 상품들의 금리는 기준금리인 1.75% 이하가 대부분이다.

우리은행의 '우리유우정기예금'(1.75%), 외환

은행의 'Yes 큰기쁨예금'(1.65%), 하나은행의 '고단위플러스 금리연동형'(1.60%), 농협은행의 '알츠 회전예금 2'(1.58%), 신한은행의 'S 드림 정기예금'(1.55%), 국민은행의 '슈퍼정기예금'(1.50%) 등 주요 시중은행의 대표 상품들은 기준금리보다 낮았다.

이처럼 예금금리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3~5%에 이를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대부분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했지만 일부 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리를 인상하는 '역주행'을 했다는 의미다. 특히 1~3등급을 기준으로 10대 은행의 일반신용대출금리 평균은 3월 4.07%에서 지난달 3.94%로, 한 달 동안 0.13%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씨티은행의 대출금리가 5.0%로 가장 비쌌다.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오히려 0.02%포인트 금리를 올렸다. 이 은행의 '주거래고객우대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예대 차이가 3.7%나 된다.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대출 금리는 3.86%에서 3.67%로 0.19%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반면에 3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이들 은행의 예금금리는 0.27%포인트나 떨어져 대출금리 하락폭보다 컸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들이 수수료 등 비이자 부분보다 예대마진에 주력하는 게 문제"라며 "비이자 부분 개선 문제는 시스템 전반적인 사항이기에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자 수익이 5%를 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펀드나 주식 등으로 분산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할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저금리구조에도 일부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는 1%대로 낮추고 대출금리를 3~5%로 유지하며 예대 차이를 최대 3.7%까지 두고 있어 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창구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주간 증시 포커스

조정 장세 상승 동력 잃어 외국인 매매패턴 주시 저가 분할 매수 바람직

국내주식시장은 대내외 변수로 인하여 상승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던 코스피지수는 4월말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2090선을 내주며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백수오 사태'로 초래된 조정의 충격을 딛고 이틀째 1% 이상 강한 상승탄력을 보이며 나흘만에 680선을 회복하면서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이는 추가상승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없는 시점에서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미국 주식 고평가 발언으로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은 가운데 그리스 채무 협상 난항과 영국 총선 결과에 따른 브렉시트(영국의 EU)변수가 부각되었고 중국 정부의 증시 과열에 따른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증시가 급락한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다행히 주말에 마감한 뉴욕증시가 고공지표 호조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했다. 또한 고공지표 내용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에 따라 미국 금리인상 우려는 당분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의 또 하나의 급락 원인이 됐던 글로벌 채권시장의 금리 급등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 투매 현상까지 이어지며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했지만(채권 가격 하락), 13일 유로존(유로화)을 사용하는 19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발표를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이 채권시장에서도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주 그리스와 유로존이 국제 금융 문제를 놓고 회동할 예정이지만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요 이벤트에 대한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주식시장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추세전환으로 이어지는 상승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에 무게를 두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해졌다. 주식시장이 조정을 거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하고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는 수급적 공백이 이어지고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가 반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상승은 어려워 보인다. 결국 외국인의 매매패턴을 주시하고 기업실적이 호전되는 종목과 증권, 화학, 바이오 등 주도업종에 대한 저가 분할 매수 전략과 목표 수익을 낮춰서 리스크관리를 병행하는 투자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경신 <NH투자증권 수원지점 부장>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맨 모두 제재

7월부터...2차 정보 미공개 수령자 과징금 폭탄

주부 A씨는 최근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B씨에게서 B씨 남편이 연구소장으로 재직중인 코스닥 상장업체 얘기를 들었다. B씨가 남편에게서 "새로 개발한 기술이 미국특허를 받아 곧 관련 수출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A씨는 친구 남편에게서 나온 정보인 만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주식을 샀다.

오는 7월부터 A씨처럼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활용해 주식 투자에 나선 2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도 과징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증권범죄 형사 처벌 대상이 내부자나 준내부자 등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수령자로 한정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차 정보수령자 등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다차(多次) 정보 수령자도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과징금은 5억원 이하가 기본 원칙이다. 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할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이

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사실상 과징금에 상한은 없는 셈이다. 그동안은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만을 금지했으나 시장정보나 정책정보 등 회사 외부에서 생성된 정보를 이용한 투자자 역시 제재를 받는다.

시세조종 규제법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시세조종 목적'을 가지고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이 처벌됐으나 앞으로는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도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5개 기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7월 시행에 앞서 지난 7일 한국거래소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국은 상장사와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공금에 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를 넣어 알기 쉽게 재구성한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이라는 해설서도 발간했다.

연합뉴스

금융업 경계 허물고 보안은 필수

금감원, 핀테크 사업 성공 위한 7계명 발표

"명확한 정체성 아래 탄탄한 보안기술과 즉각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로 무장하고 기술 간 상호결합을 시도하라."

금융감독원이 최근 소개한 '핀테크(Fintech) 7계명'의 핵심 내용이다. 금감원은 그간의 상담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핀테크 영문 알파벳을 머리글자로 활용해 7계명을 만들었다.

금감원이 제시한 첫 번째 계명은 '업권 간 경계 개척(Frontier)'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다양한 금융업권의 금융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로 신시장을 개척하라는 의미다.

두 번째 계명은 '신기술이 무엇이고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위치를 설정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Identity) 확립이다. 금융회사의 관심사항을 먼저 파악

해 특화된 서비스나 기술을 제안하라는 뜻에서 수요자 요구(Needs) 파악이 세 번째 계명으로 올랐다.

보안기술(Technology)로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네 번째이고, 구체화(Embodiment)를 통해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 다섯 번째 계명이다.

나아가 소비자(Customer) 입장에서 서비스해야 한다는 것이 여섯 번째 계명이다.

금감원이 선정한 핀테크 관련 마지막 금과옥조는 다양한 기술의 상호결합(Hybrid-patchworks)과 업체 간 제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구원호 팀장은 "금융사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알릴 수 있는 워크숍, 기술진단포럼을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우울신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우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D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